

기후 자원, 농촌 분야에 집중해야

2017.5.23, 송도 - 녹색기후기금 워크숍에 참석한 H.R. 데이브(Dave) 인도 농업 농촌개발은행(NABARD) 부총재가 인도에서 기후대응의 기업 영웅은 수트를 입은 비즈니스 맨이 아닌 작업복을 입은 농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가 기후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선 농촌 민간 분야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농민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은행권도 농업 투자가 농민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장려하는 것이 인도의 기후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다. 은행이 농민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농민이 기업가가 되는 것이다.”

데이브 부총재는 직접접근 인증기구 강화를 위해 3일간 열린 워크숍 첫 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말했다.

부총재는 개도국에서 기후자원 우선순위에 대해 말하면서 국가 리더십이 중요하며 민간부문이 농민의 삶에 이르기까지 파고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의 크기를 감안한다면 민간 부문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기후변화 적응과 감축 모두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사용과 기후 스마트한 농업을 마을 수준으로 확산하는 것 등 인도의 기후 과제를 논하면서는 “시민사회 단체가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기후 문제는 우리 사회의 DNA 일부가 되어 한다.” 고 덧붙였다.

NABARD는 농민 대출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농업 증진을 위해 1982년 설립되었으며, 그 이후 기후변화 이슈는 점차 그 비중이 높아졌다.

인도의 대표 개발 은행인 NABARD는 GCF 직접접근 기구이며, 제출한 사업도 승인을 받았다.

GCF 인증기구는 총 48개로 그 중 23개는 직접접근 기구이다. 직접접근 기구는 국가 정부의 추천을 받은 개도국 소재 조직으로 GCF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며, 해당 사업을 총괄, 감독, 관리, 모니터 한다.

“직접접근 강화 워크숍(Empowering Direct Access workshop)”은 올해 GCF가 중점을 둔 행사로, 직접접근 기구와 함께 국가지정기구(NDA)와 능력 배양 활동 사업자를 초청하여 GCF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GCF 본부에서 시작된 본 워크숍은 GCF 파트너들이 기후자원과 관련하여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다.

원문출처 = <http://www.greenclimate.fund/-/climate-finance-should-focus-on-rural-sector-says-leading-indian-lender?inheritRedirect=true&redirect=%2Fnewsroom%2Fnews>